

제목: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 누가복음 24장 13-35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두 제자들이 근심 중에 엠마오로 갑니다. 그 소식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1.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주신 말씀이 완전히 _____ 되었습니다. (26절)
2. 가슴이 _____ 거위짐을 깨달았습니다. (32절)
3. 가던 방향을 바꾸어 _____ 으로 돌아왔습니다. (33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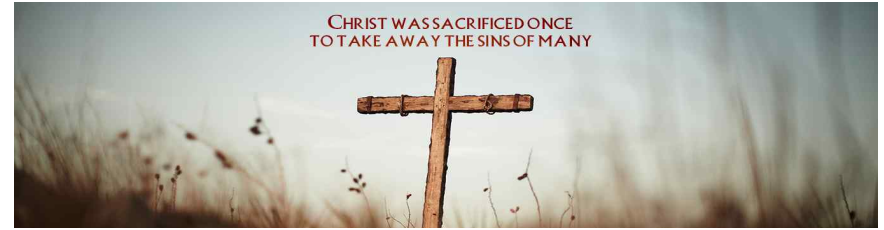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부활 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24장 13-35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Luke 24: 13-35 신약 34 페이지 Presider
- 말 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Resurrection of Jesus Our Lord Rev. Kim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161(159)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 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나의 살아하는 그 나라 프랑스)

전 세계 많은 나라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프랑스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명한 에펠탑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그림의 장소인 목마르뜨 언덕이 있어서도 아니다. 음식이 좋아서도 아니고 유명한 루블 박물관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를 좋아한다. 프랑스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나라였기 때문이다. 22살 선교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에 그저 전도한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서 나선 것이 유럽이었고 나에게 허락된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 나라의 잘살고 못사는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라로 보였다. 몇 달 동안 거의 1,000여 군데에 달하는 동네들을 자동차와 함께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한 전도지를 전달하며 사람이 없으면 전도지를 문에 꽂아서 놓고 그 집을 위하여 기도했었다. 잘 먹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다른 나라 형제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그 일을 했다. 그 해 여름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반팔과 얇은 긴팔 걸칠 것 하나만 가지고 갔던 나에게 혹독한 어려움이였다. 그런데 그 때에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영적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왜 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시 여행으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돌아 볼 때에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신 그 나라의 복음 사명의 뜨거움이 전혀 꺼지지 않았음을 늘 깨닫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말씀인가?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그 나라에 대한 부담을 평생토록 가지고 가든지 도와주든지 복음사역을 하라는 말씀이다. 나는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이 평생을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갔을 다윗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가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보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고 생각하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한다. 그 세대가 선교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다 하여도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더욱 힘을 합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뜨거움이 우리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8절) 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비전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물어둔 지나간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흥이다. 복음 전파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부활주일 기쁨의 친교 시간

오늘 예배 후 곧바로 이석순 장로님 댁으로 자리를 옮겨서 맛있는 식사와 새로 등록하신 몇 가정의 환영 그리고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멋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683 NW Valley Vista Rd. Hillsboro OR 97124 (503)679-8970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